



2022, 2023
투쟁의 현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
기호4번 박찬일.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96년도부터 이어진 민주노총 대의원을 시작으로,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뛰어들며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충남 당진 19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엔, 직장 선후배, 동료,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말렸지만 누군가는 외쳐야 시민들이 깨어나고, 썩어빠진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홀로 돈 안 드는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공약들이 지금 정치인들에게 적용되었다면,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조직도 정파도 없습니다. 오직 내 두발로 투쟁 현장에 달려가 많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길 밖에 모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하여 목소릴 높이며 투쟁하는 박찬일에게, 대 의원 동지들께선 소중한 표를 몰아주십시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투쟁의 현장에서 땀길 바라며 박찬일이었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

박찬일

4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 1996년~1998년 민주노총 구미지부 오리온전기지회 대의원
- 2002년 63일 파업 당시 사수대 대장
- 2011년 금속노조 대의원
- 2011년 현대제철 대의원
- 2011년 현대제철 운영위원
- 2011년 7기 현대제철 부지회장 출마

- 2013년 8기 현대제철 부지회장 출마
- 2018년 10기 금속 대의원
- 2019년 10기 현대제철 대의원
- 2019년 11기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마
- 2022년 (현)12기 금속노조 부위원장
- 2022년 (현)12기 금속노조 징계위원장
- 2023년 (현)8기 민주노총 규율위원장
- 충남당진 19대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
- 충남당진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출마(공천X)